

2026년 2월 25일(금) 13시부터 보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한일경제협회 서광현 사무국장 02-3014-9855 / 김지안 연구원 02-3014-9877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 제45회 정기총회 개최
- 한일수교 100주년을 향해, 상호이익이 되는 분야의 협력 확대 -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회장 : 김 윤]의 제45회 정기총회가 2월 25일(수) 오전 11시 30분에 롯데호텔서울 2층 에메랄드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구자열 LS그룹 이사회회장이 제16대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김 윤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었다. 구자열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일본 측의 파트너 기관과 마음을 합쳐 대일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애쓸 것”이라면서 “회원사를 더 자주 뵈면서 의견을 경청하고, 창립 45년을 맞는 협회 발전을 위해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명예회장으로 추대된 김 윤 회장은 “경제협력이 한일우호관계를 여는 열쇠라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한국의 속도경영과 과감함, 일본의 치밀함을 살려 제3국 공동진출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양국 청소년 교류도 의미있는 성과다. 지난해 한일 고등학생 여름캠프가 한국에서 개최됐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며 지난12년간 최장수 회장으로서 협회를 이끌어 온 소회를 밝혔다.

신임회장 선임과 함께 협회 신임 부회장으로는 권대열 카카오 그룹ESG 담당, 김성원 GS글로벌 사장, 서형원 케이디마켓 회장이, 상임이사로는 김성용 동원 F&B 사장이 새로이 선임되었다.

한편 임기가 만료되는 회장단에서는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형희 SK 부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서석승 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재선임 되었다.

<구자열 회장 소개>

구자열 신임회장은 2021년부터 제31대 한국무역협회 회장에 취임해 한일 경제 협력에 필수적인 민간 외교관 역할을 수행하며 양국 간의 신뢰 관계 회복에도 크게 기여했다.

그는 '한일 교류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양국 기업인 간의 경제 협력을 촉진했으며, 2022년 한일경제인회의에서는 기업인 무비자 입국 재개, 차세대 산업 협력 강화, 정부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하며 일본 정·재계 기업인 및 양국 경제계를 연결하는 소통의 매개체로 활약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구 회장은 지난해 10월 일본 와세다대학교로부터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학위를 수여한 인물로는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 이견희 삼성 선대회장,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 등이 있다.

문화예술 분야에도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는 구 회장은 지난해 2월 예술의전당 이사장에 임명돼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

- 일시·장소 : '26. 5.18(월)~20(수), 일본 더오쿠라도쿄 *본회의 : 19일(화)~20일(수)
- 주제 :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Next Step